동지가 금속노조다!

# 대전충북지부

32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6년 10월 10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 콘티넨탈자본 너무 무리수 뒀다

### 조합원 대피시킨 지회장 징계하겠다?

지난 7월 26일 세종시 부강공단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어 인근 사업장 노동자들과 마을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고지점 바로 옆에 위치한 콘티넨탈은 주변에서 긴급 대피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위험을 감지한 지회가 조합원들을 대피시켰다.

그런데 콘티넨탈자본이 조합원들을 작업장에서 무단 이탈시켰다며 지회장을 징계하겠다고 나섰다.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나오는 적반하장이다.

### 노동자 위험으로 내몬 콘티넨탈 책임 묻는다

바로 옆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고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노동자에게는 대피하거나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돈벌이에 눈먼 자본이 그저 상황을 숨긴 채 현장에서 계속 일하게 하면 그대로 일할 수밖에 없었다. 콘티넨탈 자본은 생산 손실이 발생할 것만을 우려해서 노동자들의 생명이나 건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당시 제대로 대피하지 못해 조합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콘티넨탈 자본은 노동자들을 위험에 몰아넣고선 결과적으로 별 피해가 없었지 않았냐며 적반하장이다. 그리고 지회장을 징계하겠다며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번 일은 너무 무모하다.

### 망신 당하지 말고 자중해야

콘티넨탈 자본은 지회장을 해고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다. 이번 징계사유서에도 징계해고 조항을 관련조항으로 넣었다. 아무래도 꼭 해고하고 싶은 모양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 콘티넨탈 자본은 대대적인 망신을 당할 것이다. 돈벌이에 눈먼 정신나간 기업이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피도 안시키 것도 모자라, 긴급 대피를 지시한 지회장을 부당하게 해고까지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망신 한 번 톡톡히 당해봐야 정신 차릴 것인가?

## 공공노동자 사상 최대 총파업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 9월 27일부터 진행 중이다. 10일부터는 화물연대도 파업에 돌입한다. 박근혜 정권이 사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사상 최대 총파업이 사상 최장기 총파업이 될 수도 있다.

박근혜 정권은 작년부터 노동개악을 통해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쉬운해고제를 도입하려고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민중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자 정권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임금피크제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임금피크제를 대부분 관철시키고 이제는 내친 김에 성과연봉제, 성과퇴출제까지 도입하겠다며 강행하고 있다. 공공노동자들의 이번 총파업은 성과퇴출제를 막기 위한 투쟁이며, 노동개악을 완전히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다.

공공노동자들의 총파업이 벌써 14일째다. 긴 파업투쟁에 지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함께 하자. 노동개악을 완전히 끝장내자.

### * 이번주 일정 *

■ 10/12(수)
- 열사 양재동 농성 (양재동)
- 18:30 대전 파업 촛불집회 (대전역 동광장)

■ 10/13(목)
- 18:30 대전 열사 촛불집회 (대전 타임월드)
- 19:00 충북 백남기열사 촛불집회 (청주 성안길)

■ 10/14(금)
- 14:00 충북본부 확대간부 수련회(괴산군 청소년수련원)

* 중앙교섭 찬반투표 : 12(수) ~ 14(금)